

소속	도서관명	이름	읽는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책의 출판사는 어디인가?	책의 저자는 누구인가?	책 속의 한 줄이나 감상평을 적어주세요.
개인회원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김진희	달 밝은 밤	창비	전미화	가족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지만 달과 함께 살아가는 아이도 있어요.
경기북부지부	에다올작은도서관	백정희	우리셋	여유당	바루	"처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았어요. 이것해야 풀알만 했죠."
경기북부지부	햇빛21작은도서관	윤영연	우리 집 식탁이 사라졌어요	우리학교	피터 H.레이놀즈 글 그림,	다 함께 움직이기 둘러앉게 될 곳, 다 함께 예전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곳, 다 함께 추억을 만들어 갈 우리의 식탁이에요.
경기북부지부	와이시티작은도서관	전선미	희망의 끈	재인	히가시노 게이코	만날 수는 없다 해도,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고 했어. 그리고 그 끈이 아무리 길어도 희망을 품을 수 있으니 죽을 때까지 그 끈을 놓지 않겠다고 하더구나.
경기북부지부	행복나눔작은도서관	배병로	가문바 나무의 노래	니케박스	마틴 슬레스케	아름다운 울림을 위한 마음의 조율
경상지부	마하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윤선희	우리집 식탁이 사라졌어요	우리학교	피터 H.레이놀즈	점점 각자의 세계로 빠져드는 가족, 어느새 식탁이 사라질만큼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야, 안돼 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책속의 가족과 닮아있는 저의 가족도 떠오릅니다. 아빠는 안방에 저는 주방에 아이는 거실에 자기방에. 마음이 뜨끔뜨끔. 합니다.
경상지부	여성회 부설 달팽이어린이도서관	전옥희	모든 가족은 특별해요	문학동네	토드파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에 도움이 되네요
광주지부	책들이도서관	윤경화	우리 가족 남치사건	책 읽는곰	김고은	우리들의 이야기
광주지부	책들이도서관	이정미	나의 엄마	그림책공작소	강경수	맘아,맘마 단 두 단어가 나오는 그림책인데 그림과 함께 읽으면서 전혀 다른 느낌의 엄마를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울림이, 울림향이 있는 그림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엄마~♡
광주지부	책들이도서관	최혜연	안녕 커뮤니티 1,2	창비	다드래기	커뮤니티, 서로의 죽음을 지키기 위해 서로의 삶을 지키는 아주 커다란 가족! well-being 해야 well-dying 할 수 있다
대구지부	해봄작은도서관	이수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세종서적	미치앨범	"가족의 지니는 의미,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리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가장 아쉬웠던 게 바로 그거였어. 소위 '정신적인 안정감'이 가장 아쉬웠던. 가족이 거기서 나를 지켜봐주고 있으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정신적인 안정감'이지. 가족 말고는 그 무엇보다 그럴 줄 수는 없어. 돈도, 명예도."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김지현	네가 태어난 날엔 공도 총;	내인생의책	낸시 탈먼	아기를 가졌을때 이 책을 보고 공을 좋아하는 저는 이 책이더 하고 사보았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우렁우렁 울때 남편이 동게동게 안아주면서 책을 읽어줬는데 생각보다 아기에게 읽어주기에 길었지만. 셋이서 책 읽으면서 애기 얼굴 보면 게 두근두근 생각납니다. 지금 아기는 초등학교생이되어서 좋은 꿈이 되었지만요.
서울지부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김혜원	<난 엄마가 참 좋아>	비룡소	이수안	나뭇잎 놀이를 다 할 때까지 숲속 냄새를 실컷 맡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엄마가 참 좋아. - 자녀를 키우는 사랑의 여정. 조심심 내거나 서두르지 않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 걸으며 느긋하게 기다려 주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울산경주지부	울산 작은도서관 협회	류소영	금요일에 읽는 가족의 시	아르데	김태훈	가족에 대해 생각하게 해 주는 시 모음집. 현재 절판인 것이 아쉽다.
울산경주지부	문수산더살작은도서관	문신임	WEALTHINKING(웰빙킹)	다산박스	캘리 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이 있다
울산경주지부	울산 하랑작은도서관	배수경	모모	비룡소	미하엘 엔데	삶은 우리들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인천지부	늘푸른어린이도서관	박소희	오늘은 웃으며	북극곰	이유진	그래도 오늘은 웃으며 살아간다.
인천지부	장동어린이도서관	이소운	커다란 포옹	달그림	제품 쿨예	색깔 동그라미로 가족을 표현한 것이 좋아요. 어렵게 엄마 아빠를 그리지 않아도 되고 색만으로 가족을 표현하는 활동을 아이 어른 할것 없이 해볼 수 있어요. 엄마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 헤어져도.. 상처를 받아도.. 다시 온전한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충청지부	내보물1호도서관	백영숙	세상에서 가장 귀한 화물	여유당	장 클로드 그렘베르그	p18 어떤 가족이 '확실한' 가족일까요? 2차세계대전 당시 쌍둥이아기와 함께 수용소로가는 기차에서 딸아기가 기도보에 쌓여 눈발에 떨어뜨려진다. 가난했지만 아이를 간절히 원했던 나뭇꾼의 아내는 많은 희생을 치루며 아이를 키우게 된다. 신을 대신한 사랑의 손길들이 아이를 키운다. 가족이란 이름을 유는 사랑이라는 끈의 길이와 넓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충청지부	푸른나무작은도서관	이은영	시선으로부터	문학동네	정세랑	멋진 신여성이었던 할머니 '시선'의 제사를 준비하는 여정이 즐겁고 근사했다. 이런 할머니가 나에게 있었다면 우리가족은 어떤 얼굴로 살아갔을지 궁금하다.
호남지부	하늘	노소희	물경하고 쫓듯한 두려움	낮은산	정영선	"엄마는 아종마랑 살고 싶어? 사람들이 알면 욕할텐데." "부끄럽지는 않아."